

코로나 제친 손흥민 살아난 골잡이 본능

9호골로 득점 단독선두 2-0 완승... 토트넘 1위 한 달 만에 득점포 가동... 맨시티 '킬러 증명'

코로나19의 위협을 이겨낸 손흥민(토트넘)이 정규리그 9호골을 터뜨리고 득점 랭킹 단독 선두로 나섰다. 손흥민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 9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홈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꽂아 토트넘의 2-0 승리에 앞장섰다. 이 골로 손흥민은 시즌 득점 수를 9골로 늘려 EPL 득점 랭킹 단독 선

두로 올라섰다. 지난달 27일 번리전 득점 이후 손흥민이 한 달 만에 넣은 골이다. 번리전 이후 손흥민은 EPL과 유로파리그를 포함해 총 4경기에서 골맛을 보지 못했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개인 통산 6골을 몰아치며 '맨시티 킬러'임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지난 A매치 기간 대표팀

에 소집돼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을 소화한 그는 코로나19를 가까스로 피하고 소속팀으로 복귀한 뒤 가진 첫 경기에서 '무사히' 골을 넣어 팬과 한국 축구계를 크게 안도하게 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5분 만에 전광석화 같은 윙공간 침투로 골망을 흔들었다. 탕귀 은둔벨레가 수비라인을 넘기는 로빙 패스를 넘겨주자 손흥민이 한 번 드리블한 뒤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땅볼 슈팅으로 골문을 갈았다.



전반 5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넣은 손흥민.

연합뉴스



육상 세레머니 하는 조성재.

제주 시청 조성재 또 '한국 신기록'

한 달 새 두 번이나 경신 국대 선발전 평영 1위

제주시청 조성재가 한 달 새 한국신기록을 두 번이나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조성재는 지난 17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0년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일반부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08초59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기록은 조성재가 지난달 제10회 김천전국수영대회에서 자신이

수립한 한국기록(2분09초30)을 한 달 만에 0.71초나 단축한 것이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치러진 평영 100m에서도 조성재는 1분00초4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개인 혼영200m에 출전한 조성재는 이회은은 4분52초0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19일에는 이회은이 개인혼영200m에서 2분15초5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성재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도쿄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완전히 달라진 한국전력 대역전승 '윤빛가람 멀티골' 상하이에 완승

2020-2021 V리그 남자부 트레이드 이후 3연승 질주

개막 7연패에 빠졌던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대형 트레이드 이후 달라진 경기력으로 3연승을 질주했다. 한국전력은 22일 대전 중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방문경기에서 1, 2세트를 내줬으나 3, 4, 5세트를 휩쓸고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개막 7연패 늪에 빠졌던 한국전력은 두 번의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대표 센터 신영석, 세터 황동일과 김광국을 영입했다. 전력이 확 달라진 한국전력은 '우승 후보' 대한항공과 '말리 특급' 노우모리 케이터가 버틴 KB손해보험을 연파한 데 이어 삼성화재에 대역전승을 거두고 삼성세를 이어갔다.

개막 7연패 뒤 3연승을 거둔 한국전력은 승점 11위로 최하위(7위)에서 위치한 순위가 4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3세트 이후 살아난 카일 러셀이 양 팀 최다인 23점, 박철우가 20점을 올리는 등 한국전력 '쌍포'가 화력 싸움에서 삼성화재를 앞섰다. 하지만 1~2세트에서 서브 리시브는 물론 공격에서도 고전했던 러셀이 3세트 이후 살아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전력은 3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잡아내고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4세트에서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며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끌고 갔다. 삼성세는 5세트 초반에도 계속됐다. 분위기를 탄 한국전력은 황동일의 단독 블로킹으로 10-5로 달아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울산, ACL 명예 회복 시동 올해 두 차례나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명예 회복의 시동을 걸었다. 울산은 21일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중국)와 치른 2020 ACL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윤빛가람이 전반에만 두 골을 터뜨리고 김기희가 후반 헤딩골을 보태 3-1로 완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FC도쿄(일본)와 대결해 1-1로 비겼던 울산은 대회 첫 승리를 챙겼다. 울산 김인성의 패스를 받은 윤빛가람이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슈팅을 했고 골키퍼에게 막혀 흘러나온 공을 상대 수비수가 건어냈다. 하지만 공이 다시 윤빛가람 앞으로 왔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드리블하는 윤빛가람.

연합뉴스

마무리했다. 울산은 후반 41분 윤빛가람의 득점포가 다시 터지면서 한 발짝 더 달아났다. 골키퍼의 선방으로 실점을 막아내던 상하이는 후반 44분 주엔룡의 헤딩골로 겨우 영패를 면했다.
연합뉴스

팽팽한 접전, 승부는 또다시 원점

NC 마운드 힘으로 승부수 두산 3년만에 KS에서 영패

2020년 프로야구 챔피언은 23~2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KS) 5~7차전에서 결정된다.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이스는 2승 2패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두산은 1승 1패에서 맞이한 20일 3차전을 7-6으로 이겨 통산 7번째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듯했다. 지난 해까지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승 1패 뒤 3차전에 승리한 팀이 우승할 확률은 무려 93.3%(15차례 중 14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NC는 21일 4차전에서 마운드의 힘으로 두산을 3-0으로 제압하고 KS를 2승 2패 원점으로 돌렸다. 송명기-임정호-김진성-드루 투진스키로 이어진 NC 마운드는 두산 타선을 단 3안타로 막았다.

4타수 3안타를 친 김재호를 빼곤 타순표에 이름을 올린 타자 8명이 안타를 1개도 못 쳐 영패를 자초했다. 올해까지 6년 연속 KS에 진출한 두산은 2017년 이래 3년 만에 KS에서 영패를 당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경기 후 "타자들의 감각이 너무 나빠서 걱정"이라고 아쉬워했다. 김재환(16타수 1안타), 박건우(12타수 1안타)의 KS 타율은 1할에 못 미친다. 허경민, 호세 페르난데스, 오재일의 타율도 2할대도 미치지 못한다. 4차전까지 지표에선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 포스트시즌 10경기를 치른 두산보다 NC가 투타 모두 우위에 있다. 구창모(NC)와 크리스 플렉센(두산)의 선발 투수 대결로 막을 올리는 KS 5차전 승부의 관건은 두산 타선이 구창모를 상대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점수를 뽑아내느냐에 달렸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미담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아생애정(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KBS 아침 뉴스타임 2부 9:1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투구촌 뉴스 11:00 연중 라이브(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카이로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세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생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뽀뽀뽀 유치원 9:15 핫도그 만능어플까요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2:25 지식채널e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45 몬카토 16:15 로빈 후드 17:00 EBS 뉴스 17:30 출동! 슈퍼강스 19:00 위 배어 배어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내트미크 공중기획 문화스케치 13:50 안녕 우리말 13:55 지구불지키는 20가지 제안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츠 인테너(재)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박원순의 같이 살기(재) 13:20 트레킹보너스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지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디류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특집 힘내라! 13:20 뽀뽀뽀 친구친구 13:50 2시 뉴스 워친 15:20 이 맛에 산다 16:0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스페셜 17:00 5 MBC 뉴스 17:15 생방송 오늘 저녁	12:00 SBS 12뉴스 12:15 JIBS 뉴스 12:30 제28회 임방울 국악제 14:00 뉴스브리핑 15:00 클리프 NOW 제주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배구 메고 인생 내 컷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맞춤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권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길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전교톱10 원전정복 21:30 축구야구일구 1부 22:15 축구야구일구 2부 22:40 개는 훌륭하다 1부 23:15 개는 훌륭하다 2부	18:15 MBC스포츠 2020 KBO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 21:50 MBC 뉴스데스크 1부 22:40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23:1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23:50 스포츠 특선	18:50 내모세요 19:50 SBS 8 뉴스 20:30 S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펜트하우스 1부 22:40 펜트하우스 2부 23:15 동상이몽2 23:5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다문화코미디라미 공무원 내대기 20:00 KCTV 다큐스페셜 21:00 KCTV 종합뉴스	KCTV 7:00 KCTV 뉴스 9:30 KCTV 다큐스페셜 10:30 배워봐서 관광중국어 11:30 취미로 먹고 산다 12:30 KCTV 시청자대상 15:10 스포츠 다큐 더 레슨 17:00 KCTV 뉴스 17:40 김용우의 영화사색 18:30 다문화코미디라미 공무원 내대기 20:00 KCTV 다큐스페셜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3일 김종상 저단(祖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동 교수(010-5233-6136)

<p>36년 일이 호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48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 60년 차광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조심. 72년 계약문이 길하고 변동운동 원만. 집안보다 외부활동이 더 중요하다. 84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욱 전문가로 발돋움 할 것.</p>	<p>42년 감사와 고마운 사람에게 표현을 하라. 54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66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데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8년 변동수가 생기고 구내 흥동이 강해진다. 90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주변인의 지혜를 얻어 일을 해결하는 게 좋다.</p>
<p>37년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온다. 재료와 관계된 일이 발생한다. 49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61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 듯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3년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면 미루지 말라. 다음에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85년 직장이나 취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기귀가.</p>	<p>43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 설계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55년 급히 서두를 일이 생긴다. 문서변화,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다. 67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79년 취업이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매출이 증가. 91년 의욕이 많지만 기쁘지 않다. 활동 원만.</p>
<p>38년 대인관계를 활용하면 결과와 기쁨이 있다. 50년 상대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비판하지 마라. 62년 마음과 몸이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 나의 따스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상대를 매료시킴. 86년 구실이 따르니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p>	<p>44년 배우자 건강이 불리하니 퇴근 시 보약이나 영양제라도 가져가면 좋다. 56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 부모님께 방문, 안부전화 필요. 68년 동업자가 동업 체의 시정중화 거절도 필요. 독립사업 길. 80년 마음손질이나 신발을 지출을 지출한다. 92년 매매나 문서상 이익이 오니 미루지 말 것.</p>
<p>39년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51년 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행동을 옮겨라. 63년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도록 하라. 75년 자녀 또는 가정에서 고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올리거나 방문도 좋다. 87년 마음먹은 일은 꼭 하려고 한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원만한 긍정의 힘이 필요.</p>	<p>45년 일이 증가되고 몸이 분주하다 음주는 절제 필요. 57년 주유원, 숙식업, 차량업, 관광업은 늦게까지 분주하다. 69년 직장인에게 실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1년 정보활동과 친구나 선배를 만나 미래를 토론해보는 것도 좋다. 93년 감정대립 또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언행 자제.</p>
<p>40년 신변에 위협이 따를 수 있다. 조기에 귀가하되 과음은 자중하는 것이 좋다. 52년 갈길이 먼데 조금 힘이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64년 동업 또는 창업에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라. 76년 마음이 격정이 먼저 앞선다. 생각보다 실적이 중요하다. 88년 정보는 미래의 나의 직업으로 연결된다.</p>	<p>46년 분실 망실수가 있으니 지갑, 물건을 잘 챙길 것. 58년 돈지출이 생기고 금전문제로 의견 차 발생. 70년 애매한 행동이 구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82년 반가운 소식이나 답답하던 일이 해소되니 인적자원을 활용하라. 94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하여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p>
<p>41년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53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주변과 협의한다. 65년 부부간 논쟁이나 다툼이 있거나. 이성간 교제가 가까워 질 수 있다. 77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몸이 분주하고 소식이 찾아온다. 89년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보는 것이 마음 편하다.</p>	<p>47년 제조-건설분야, 관광사업 계약이 따른다. 59년 마음이 격정이 먼저 앞선다. 생각보다 실적이 중요하다. 71년 동업 또는 창업에 생각이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라. 83년 정보는 미래의 나의 직업으로 연결된다. 최선을 다하라. 95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감이 크지만 마음만은 넓게 가져야.</p>